



애경산업 '랩신 세탁 섬유 항균제' 출시

애경산업이 '랩신 세탁 섬유 항균제'를 내놓았다. 섬유에 남아있는 세균을 제거해 쾌적한 냄새를 없애주는 섬유 항균제다. 운동복, 수건, 이불 등 끈적한 빨래는 물론, 속옷 등 민감한 의류까지 깨끗한 위생 빨래를 돕는다. 상쾌하고 은은한 솔잎향을 더해 세탁 후 산뜻하고 깔끔한 향기가 특징이다.

세계에 불어닥친 '퍼펙트 스톰' 공포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대기업들 비상경영 돌입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의 공포가 재계를 덮고 있다. 경제에서 퍼펙트 스톰은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발생해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40년만의 역대급 인플레이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도미노 급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연이은 악재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일제히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 CEO들이 일제히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SK그룹·포스코·현대중공업그룹

환율·금리·물가 '3고' 대비 나서 포스코, 현금 중심 경영 한층 강화 현대중, 그룹 전체 역량 결집 논의 SK "투자 계획, 바뀔 가능성 있어"

●경제 충격 대비, 리스크 축소에 총력

포스코그룹은 21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주재로 그룹 내 사장단 및 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경영회의를 열었다. 환율, 금리, 물가 등 3고 영향 본격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룹사 전체가 위기 대응 긴급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위축, 비용 상승, 공급망 위기 등 복합적인 경제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금 즉시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에 돌입한다"며, "각 그룹사 경영진들은 각

사별 주요 경영요소들을 면밀히 체크하고, 특히 현금 흐름 및 자금 상황이 문제되지 않도록 현금 중심 경영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철강, 인프라, 에너지, 이차전지 소재 등 그룹내 주요 사업별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포스코그룹은 현 글로벌 경제 상황을 수요산업 부진, 재고자산 증가 등에 따른 글로벌 시장축소, 원자재·에너지 및 금융·조달 비용상승, 원자재·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이 겹친 복합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적극적인 수익성 방어, 구매·생산·판매 등 각 부문의 구조개선을 통한 원가 혁신, 해외법인 리스크 점검, 투자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그룹의 신성장 사업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이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하고, 위기일수록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지난 4월 경영환경 위기를 경고하며 각 사별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사장단 회의를 열고,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타개책을 논의했다. 20일 권오갑 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조선태양·에너지·건설기계·일렉트릭 등 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현재의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그룹사 전체의 역량 결집 방안을 논의했다.

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나의 변수가 아닌 안팎의 악재가 겹치는 복합위기가 현실화 됐다"며, "각 사에서는 경영전략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약하는 기업이아말로 진정한 실력을 갖

춘 기업"이라며, "각 사의 CEO들은 눈앞의 퍼펙트스톰에 지나치게 위축되지 말고, 철저한 대응책을 기반으로 위기극복의 참병이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내년까지는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전술적 투자 지연을 예고했다.

최 회장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 번도 세계가 긴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이자율을 계속 내리고, 돈을 풀어왔다"며 "계속 돈을 푸는 것으로 버텼던 것이 쌓인 데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위기가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SK그룹의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웠던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만큼 전략·전술적인 형태로 투자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청주 신규 반도체 공장 증설 안건을 보류한 바 있으며, 내년 설비 투자 계획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사장단 회의를 열고 사실상의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삼성 전자 계열사 사장단 등 경영진은 8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갖고 글로벌 시장 현황과 전망, 사업 부문별 리스크 요인 점검, 전략사업 및 미래 먹거리 육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LG그룹도 지난달 23일 구광모 회장 주재로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촉발된 위기 돌파 방안을 논의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이제 카톡에서 힐링 선물하세요" 메디힐,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베스트셀러로 패키지 구성...오센트와 협업도

엘앤피코스메틱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 메디힐이 25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했다.

일상 속에서 간편히 힐링을 선물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구성된 힐링 선물 컬렉션 패키지를 선보인다. '메디힐 1일 1팩 힐링데이 컬렉션', '메디힐 스트레스 아웃 컬렉션', '메디힐 힐링 턴오버 컬렉션' 등으로 구성했다. '메디힐 1일 1팩 힐링데이 컬렉션'은 메디힐 에센셜(6종)·앰플(4종) 마스크팩을 1팩씩 담았다. '메디힐 스트레스 아웃 컬렉션'은 진정·수분 케어를 부여하는 메디힐 티트리, 마데카소사이드, 워터마이드 에센셜 마스크 등 총 15팩으로 구성했다. '메디힐 힐링 턴오버 컬렉션'은 수분·진정·탄력·미백 케어를 돕는 에센셜 마스크팩 4종을 총 20팩 담았다.

또 메디힐과 향 전문 브랜드 오센트가 협업한 '메디힐 힐링앳홈 컬렉션'도 만날 수 있다. 힐링을 담은 시트 마스크와 마음까지 위로해주는 향을 더해 '나만의 온전한 휴식시간'을 콘셉트로 제작했다. 메디힐X오센트 우드랜드 인센스 스틱과 브랜드 대표 마스크팩 10팩을 담았다. 회사 측은 "이번 입점을 통해 새 고객을 만나게 돼 의미가 크고,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하는 '메디힐 힐링앳홈 컬렉션'.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비타민D 보충하면 이석증 재발 감소 코로나19 중증도 낮추는 데도 도움

머리를 특정 위치로 움직일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이 나타나는 이석증(양성돌발두위현훈)은 재발이 흔하다. 이석증은 노화에 따른 내이의 퇴행성 변화가 주 원인이다.

그동안 높은 재발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원인이나 예방법이 밝혀지지 않아, 재발할 때마다 이석정복술을 실시한 후 결과를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들에 따르면 비타민D가 부족하고 골밀도가 낮을 경우 이석증 유병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석증이 자주 재발하는 환자는 어지러울 때마다 비타민D 보충요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최근 체내 비타민D가 부족하면 면역체계의 염증반응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코로나19 발병 위험 및 중증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족한 비타민D를 보충하면 코로나19 양성률과 중증도 이상 환자의 중환자실 입원 및 사망률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낮은 비타민 D 농도는 심혈관계 및 대사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중증도를 높이는 데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 D는 자외선 노출을 통해 합성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흡수하는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이다.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는데 야외 활동이 어렵다면 비타민 보충제나 생선, 우유, 치즈, 달걀노른자 등을 먹는 것이 좋겠다.

아산 신경과 이연오신경과 오형근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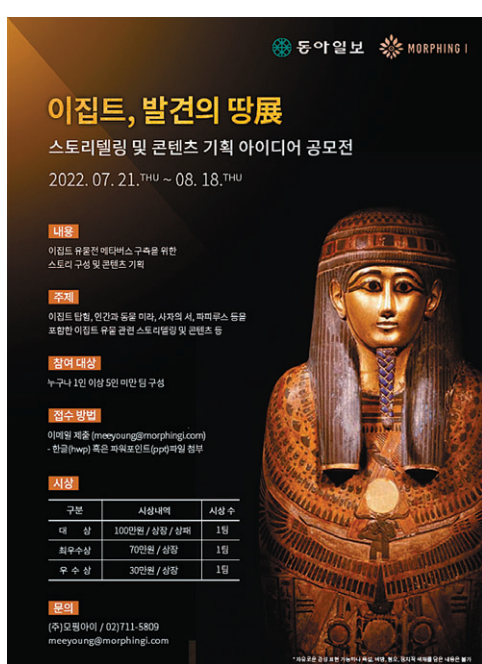
동아일보·모핑아이, '이집트, 발견의 땅'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전 개최

국내 최초 최첨단 디지털 유물 전시 전시 위한 스토리텔링·콘텐츠 모집 8월18일까지 접수...총 200만원 상금

동아일보와 NFT 및 메타버스 솔루션 스타트업 모핑아이가 '이집트, 발견의 땅' 전시와 관련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의 주제는 전시의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스토리텔링 또는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이다. 1인 이상 5인 미만의 대학(원)생 또는 일반인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을 선정해 총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8월 18일까지 접수한다.

'이집트, 발견의 땅'은 12월 10일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전국 투어를 끝내고 국내전시를 시작한 약 6년 만에 돌아오는 이집트 전이다. 인간과 동물 미라, 미라관, 사자의 서, 파피루스, 매장품 등을 포함해 총 250여 점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집트 유물전이다.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함께 세계 최대 이집트 컬렉션을 자랑하는 네덜란드 레이덴국립고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전시된다. 대규모 CT 스캔과 3D X-ray 스캔, CG 기술을 도입해 국내 최초로 최첨단 디지털 유물 전시를 진행한다.

김기영 모핑아이 대표는 "공모전을 통

해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상 콘텐츠가 향후 사업화될 경우 수상자들과 함께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핑아이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로 NFT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국내 최초로 NFT 미스터리박스 판매 방식을 공개했다. 올해 초 하철경 화백의 작품을 NFT로 완판시키는 등 블록체인과 더불어 메타버스 연계를 통한 디지털 아트 워크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동아일보, KBS미디어, 이엔에이파트너스, 레이덴국립고대박물관이 주최하며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이 후원한다.

양형호 기자 hmyang0307@donga.com

"파운드리 사업에 한 획"…삼성,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출하식

삼성전자는 25일 경기도 화성캠퍼스 V 1라인에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열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사업부는 3나노 GAA 공정 양산과 선제적 파운드리 기술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삼성전자 DS부부장 경계현 대표(사장)는 "이번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한 획을 그었다"며 "핀펫 트랜지스터가 기술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대안이 될 GAA 기술의 조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결과"고 말했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3나노 GAA 공정을 고성능 컴퓨팅(HPC)에 처음 적용하고, 주요 고객들과 모바일 SoC(시스템 온 칩) 등 다양한 제품군에 확대 적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화성캠퍼스에서 3나노 GAA 파운드리 공정 제품 양산을 시작했으며, 향후 평택캠퍼스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